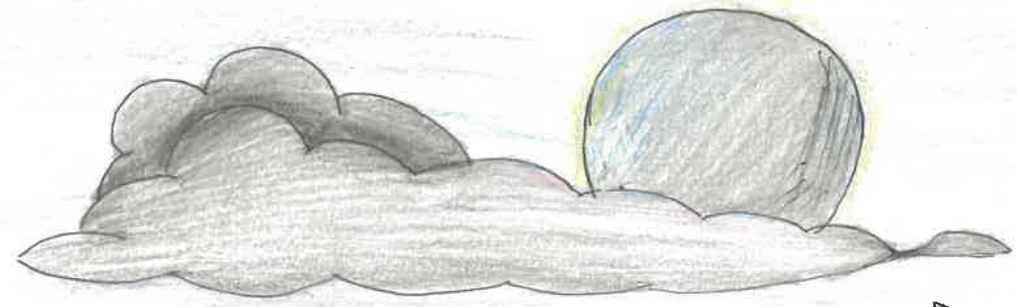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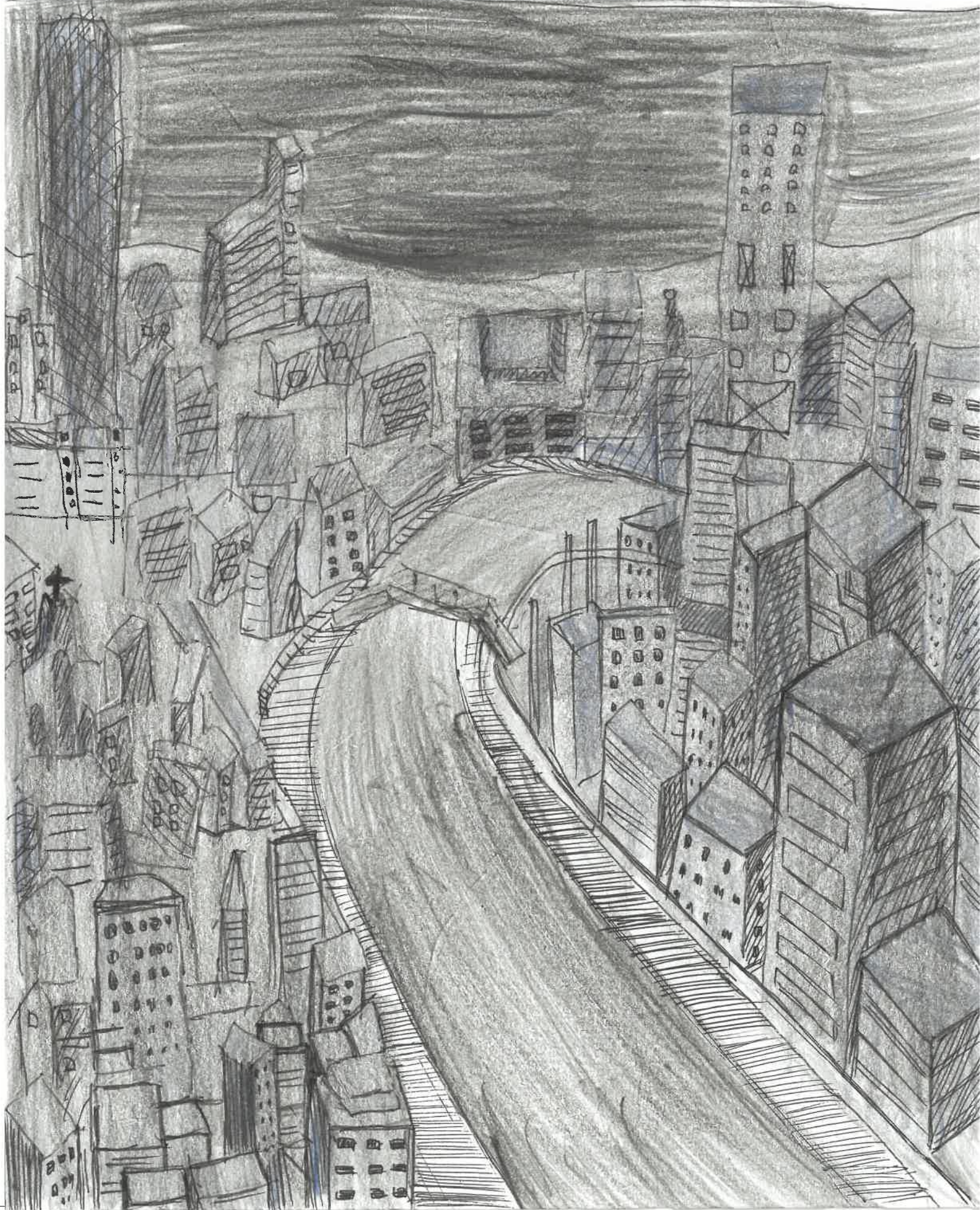


6학년 4반의 잊, 거, 썸

「블랙아웃」의 4반4컷



6학년 4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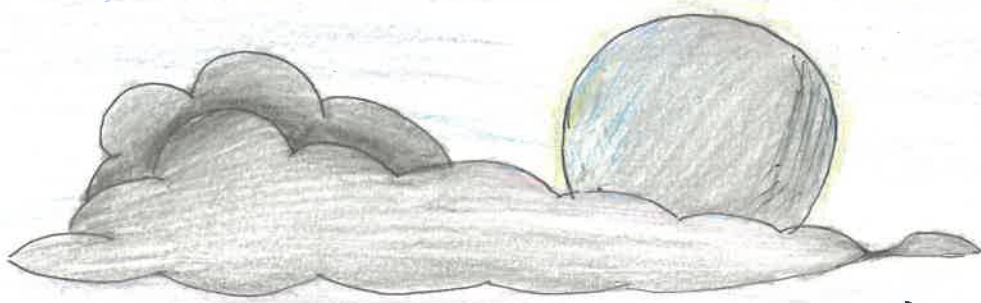
잊, 거, 썸

「블랙아웃」

의 4반4컷







6학년 4반의

이건스

「블랙아웃」

의 4반 4컷




#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유끼라)


**속보**  
전국 대규모 정전  
한국 전력 전문 인력 긴급 투입  
정전 복구 중, 곧 정상화 예정




**속보**  
전국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 이동재 계속  
청와대 한국 전력 경찰청 소방재청 등  
관계부처 협력 긴급 대책 마련  
예비전원 시스템 가동 중  
곧 정상화 예정



**속보**  
주요 공생체 아비  
대통령, 관계부처 협력 강화  
발전소 송전소 변전소 등 시설 점검 중  
정부, 국제 전문가 구성된 재난반응 센터  
피해 상황 일계를 곧 정상화 예정



**속보**  
전국 대규모 정전 사태 선포  
청와대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  
은구상인 위기...



첫번째 그림은 첫째날을 그리겁니다

장면이기도해봐 처음 와서 그려봐 좋아

이장면은 그때가 음악하는 날이 이어지면 때이였어

매일 매일이 너무 재미 있고 진짜 너무 좋아

흥빠진 새우? 돼지? 알까 그리고 정전 입에서 배이 안들어오는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두번째 그림은 둘째날을 그려봐요! 이야는

이때 전기가 안들어와서 신기도 못을 진짜 어릴때

아이를 삼은 어류는 내가 글씨를 썼다면 나는 이대

진기만 안켜지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세번째 그림은 셋째날을 그려봐요 제이선 전기

아직 나오지 않는다고 못키고 제이선으로 가야돼

통화는 1.5키로나 빠지고 동민이는 1키로나 빠졌다

그날 빠진거라해서 기분이 안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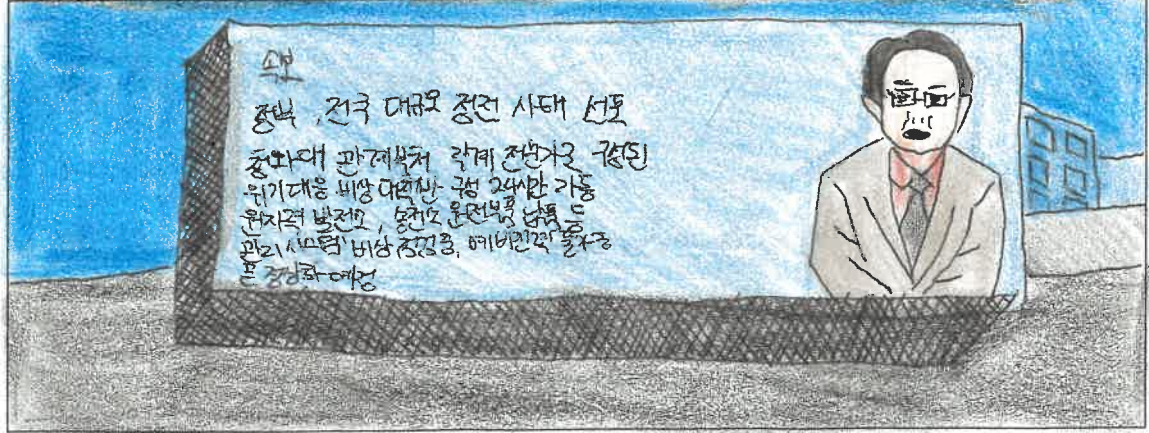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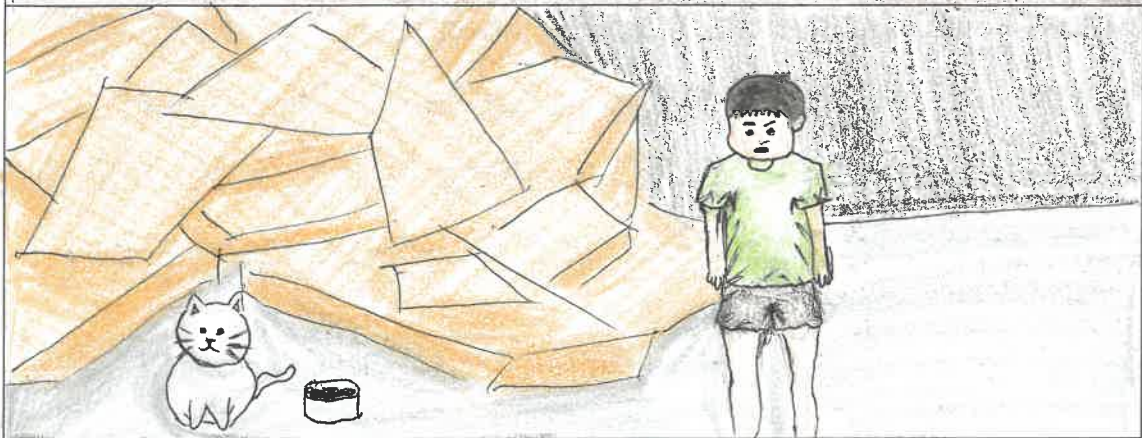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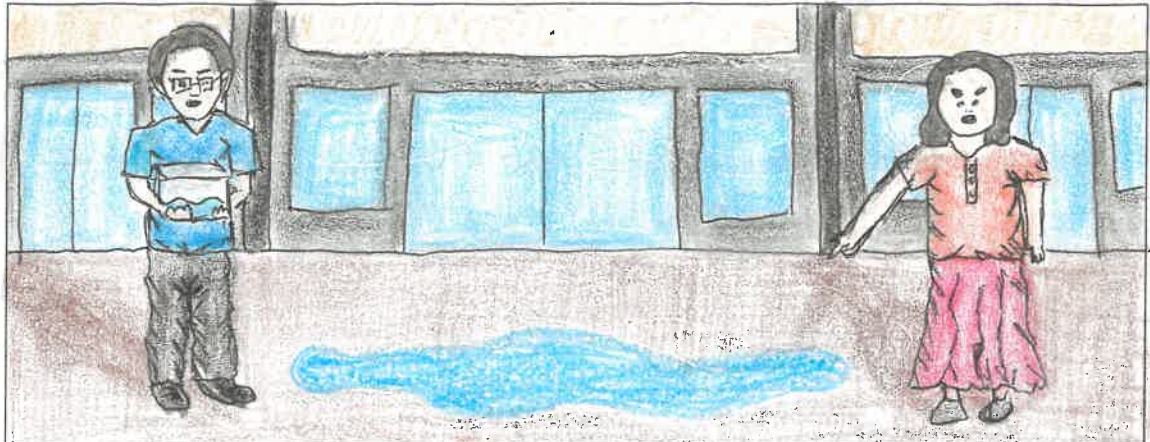
네번째 그림은 넷째날을 그리겁니다

벌써 정전이 넷째나 집안이 된겁니다! 시위

안정 생각해서 집안이야기야기도 많이 남겼습니다

#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 >홍하< )



가게 사장님이 머리에 있는 물기들이 다 녹아서 머리에 있는 물은 53에  
비리는 상황인데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물을 옷이 튀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면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예민해지면 자신이 잘못해도 사과도  
안하고 오히려 화내고 계속 따지고 싸우는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

새끼 고양이도 혼자 남아 있는데 어미고양이랑 다른 고양이들은 다 가고 혼자 남고  
다리를 다쳐서 동민이와 진수가 새끼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계속 챙기는 장면이다.

이 장면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볼락이 없어 된 상황인데도 부모님들도 안계셔서 자기들 밥, 물  
등을 사지 않고 고양이부터 챙기고 고양이가 다치고 혼자 남아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

동희와 동민이가 가던 도중에 사람들이 때문에 우리가 깨져서 동희가 팔을 다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편찮히는 말 한마디 안하고 그냥 힐끔 힐끔 쳐다만 보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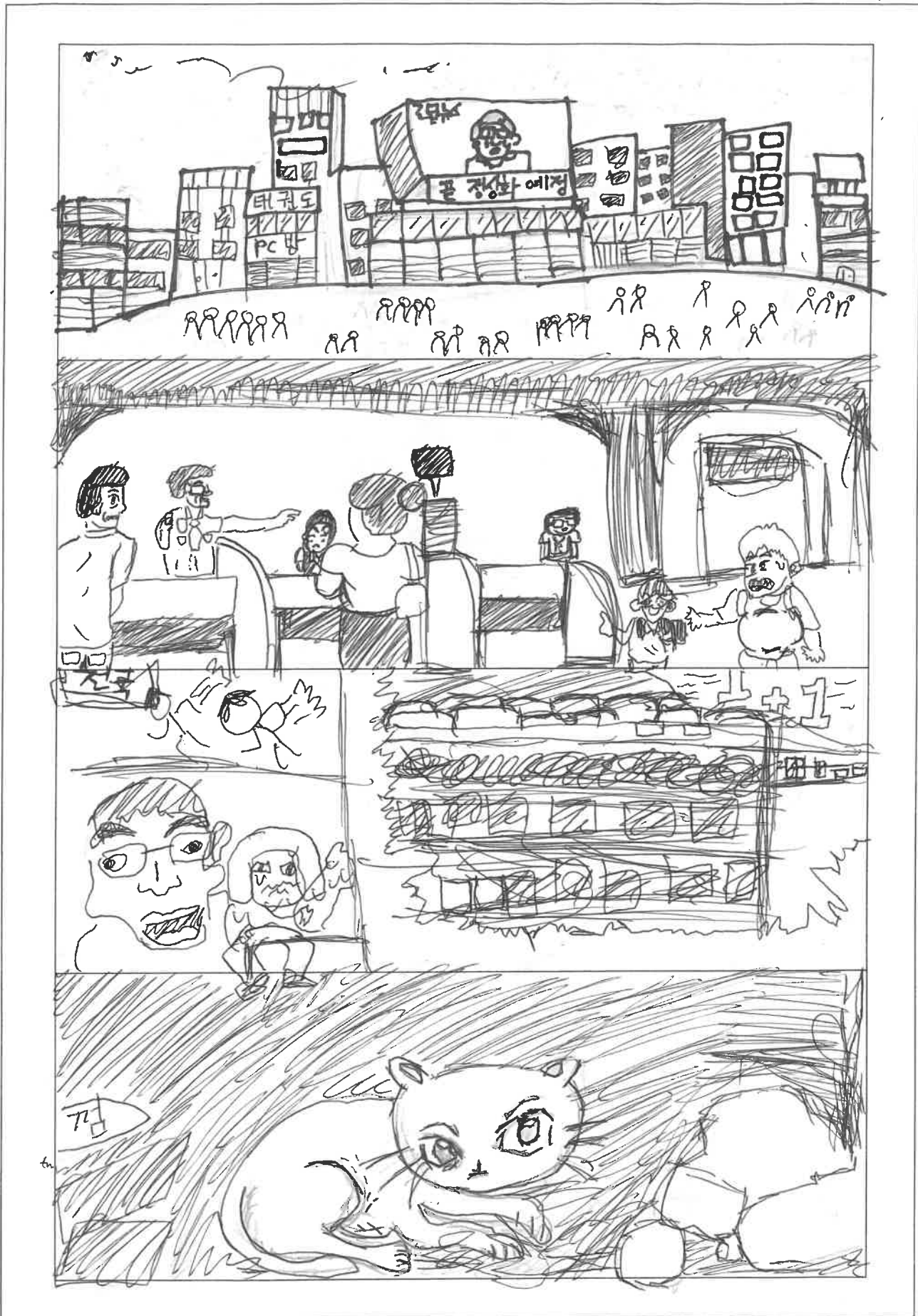
이 장면이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사람들이 볼락이 없어 됐다 다 깨지고 그리고,  
동희가 다쳤는데도 원래는 한명쯤은 도와주고 신경 써줬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힐끔 쳐다만 보고 가니까 신기해서 기억에 남았다.

수일제까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서 듣고 곧 정상화 예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계속 확인하고 싶다고만 말하고 눈이 나오는 장면이다.

이 장면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저 눈은 계속 나오면 눈이 나오면 전이 큰 사다치고  
다른 볼락은 전이 나쁘고 하니까 이상하고 계속 전도 안들고 곧 정상화 예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싶은게 이상하기 같아서 그 점이 기억에 남았다.

#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기각사)  
2021





전기가 나간지 몇일이 지나고 전광판에서 곧 정상화 예정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예정이라는 말은 아직 전기가 안들어왔다  
는 말만 있는가? 하지만 전광판에 전기가 들어온 집에서  
이웃이 들어 그려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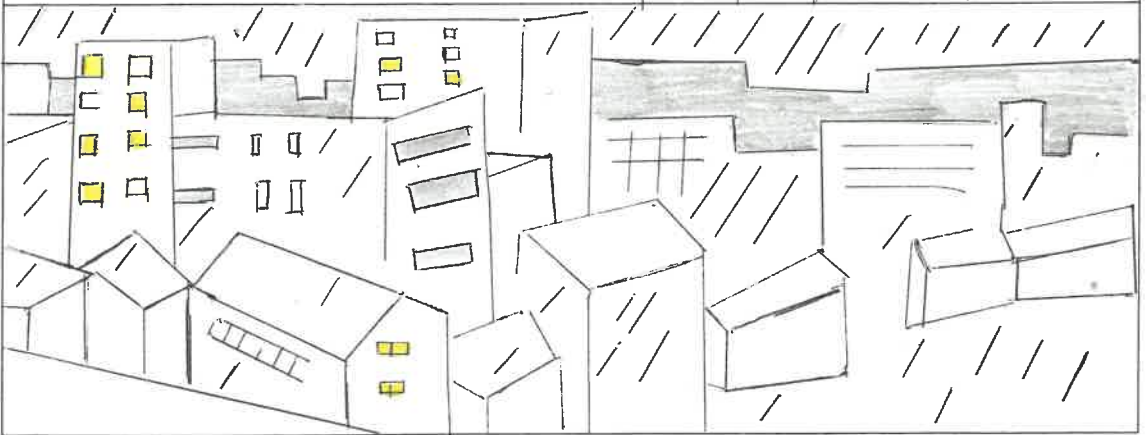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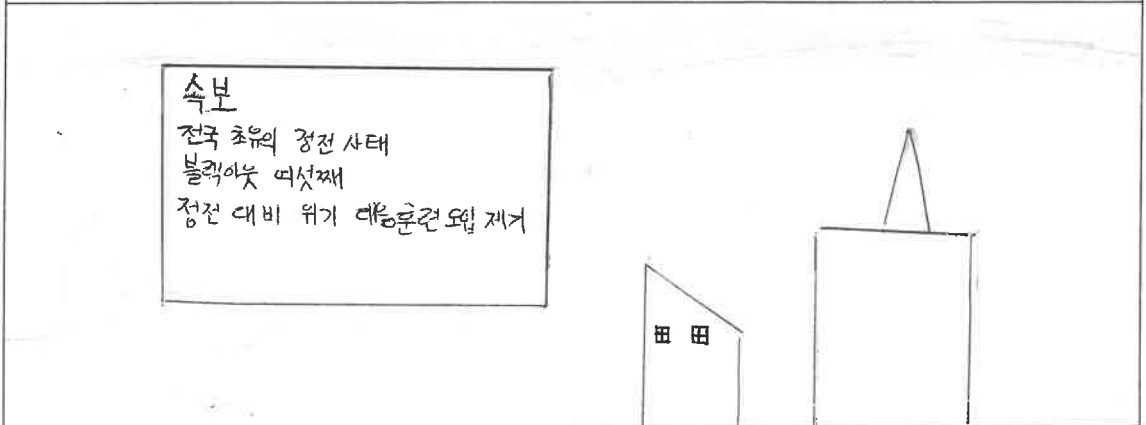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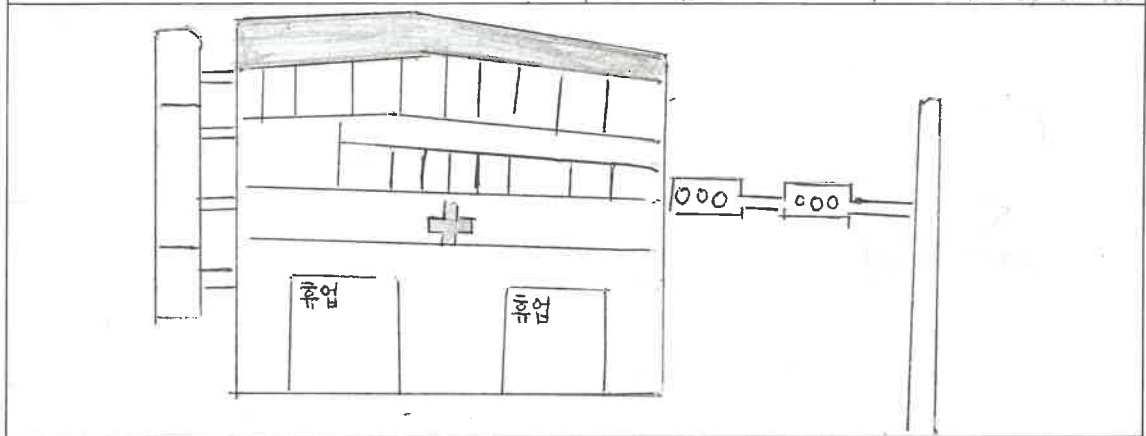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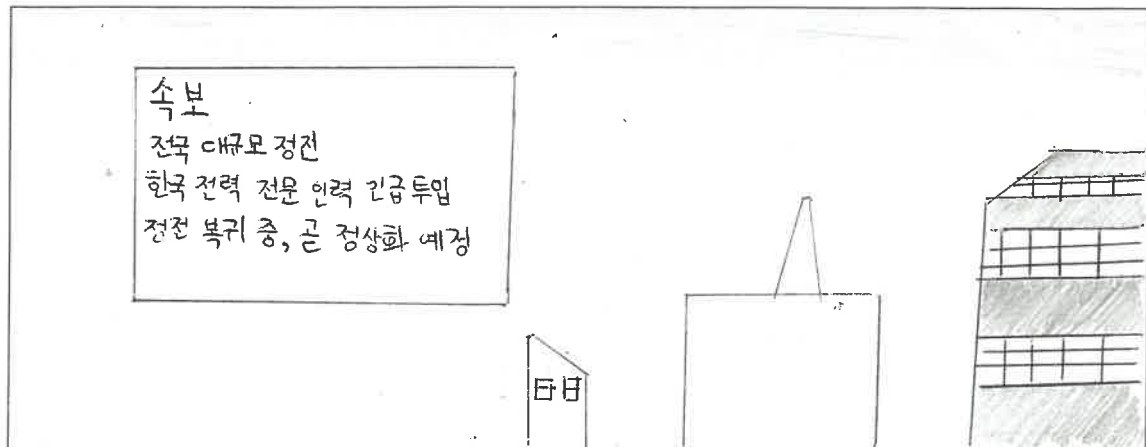
주인공과 친구가 밝이 너무 터워 건물 안으로 들어온 장면이다.  
그리고 에어컨이 전기가 나가 꺼지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기과  
하다. 내가 기괴한걸 좀 좋아해서 참 인상깊었다.

어떤사람이 각목으로 만든 창문 개 부수는데 사람들이 이상을 알고  
문을 흔치는 모습이다. 이상을 알은 모습이 정말 진상과도 다른  
어이다.

고양이를 발견한 장면이다. 고양이가 귀엽진 하지만  
나중에 고양이가 죽는다는 걸을 알아서 슬프기도 하다. 그런걸이  
이상기에서 그려보다.

#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김민준)



첫번째 그림은 부모님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셨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매우 더운 날 에어컨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나도 정전이 되어 매우 더운 날 에어컨을 들지 못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두번째 그림은 정전이 되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가게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세번째 그림은 정전이 된지 여섯째가 되는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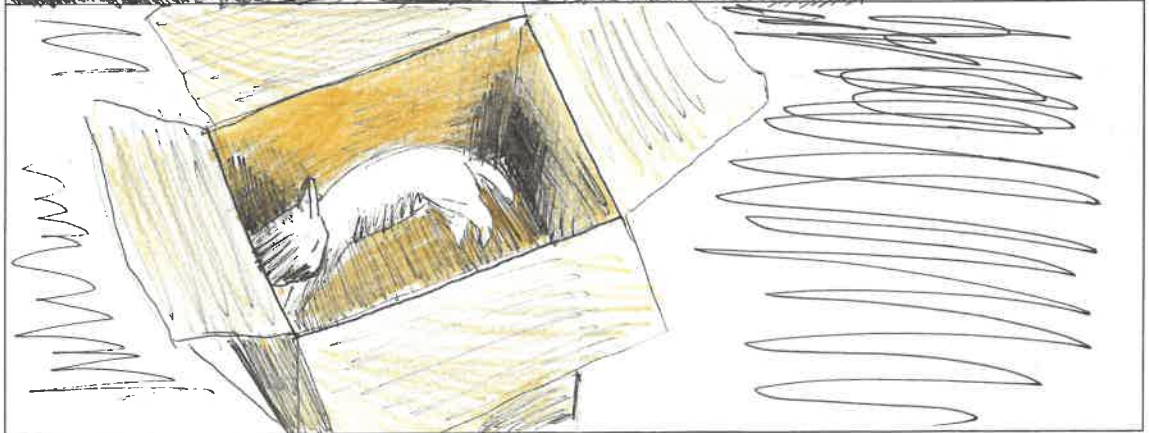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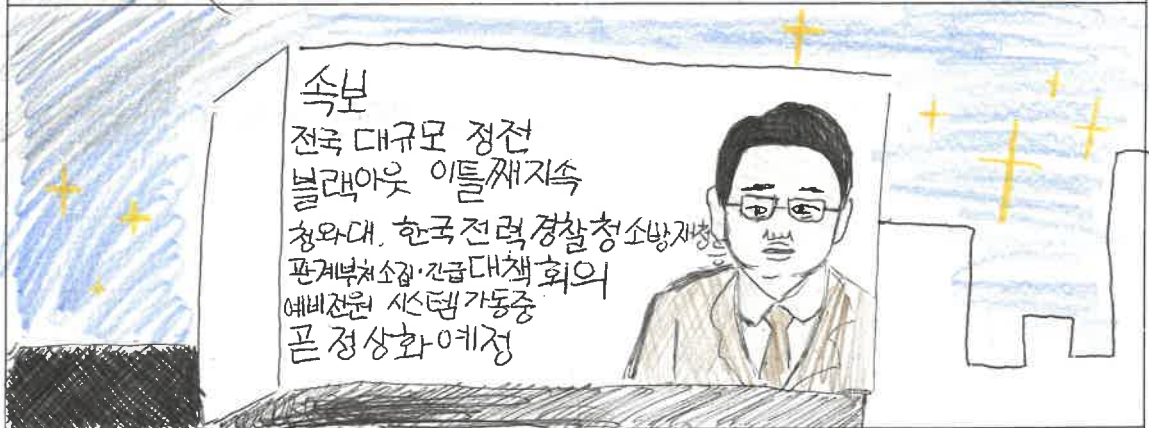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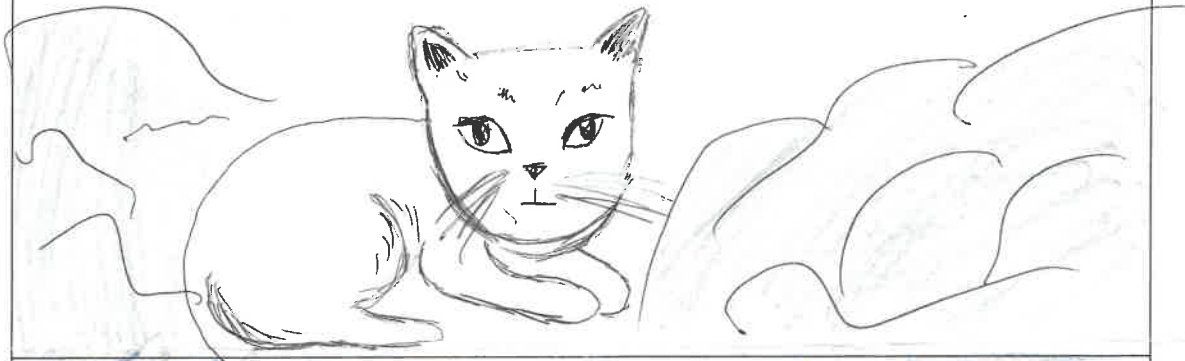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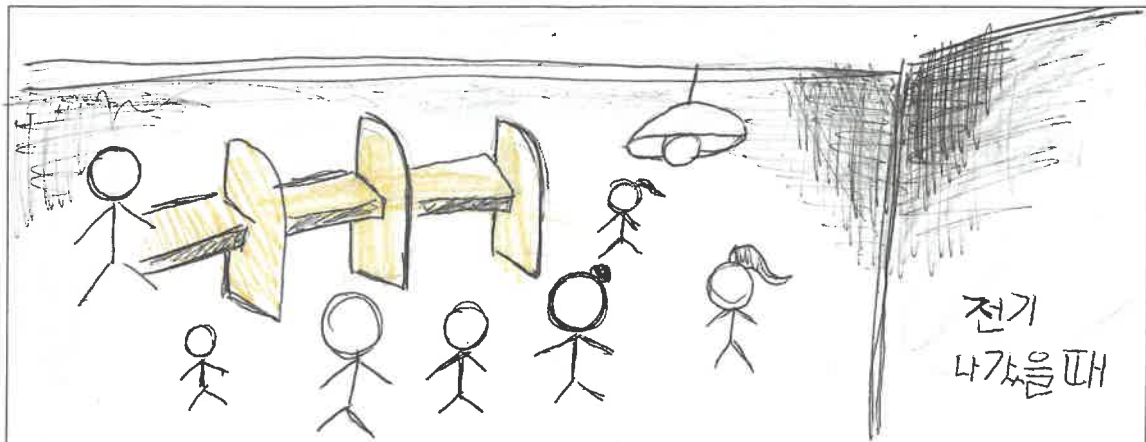
불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네번째 그림은 정전이 완전히 끝난 후 집집마다 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블랙아웃이 되면 정말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김정후)



은행에서 정전이 되었을때 사람들이 당황스러워 하는게 인상깊었다.

은행에서 정전이 된 장면

쓰레기들 사이에서 고양이 나오는 장면

쓰레기들 사이에서 나오는 고양이가 불쌍 하기도하고 귀엽기도 하면서  
버려진게 너무 인상깊었다.

정전이 되고 곧 정상화 된다는 방송을 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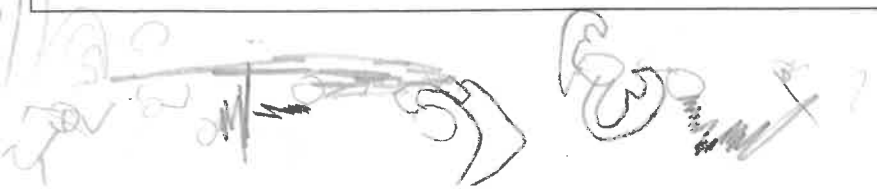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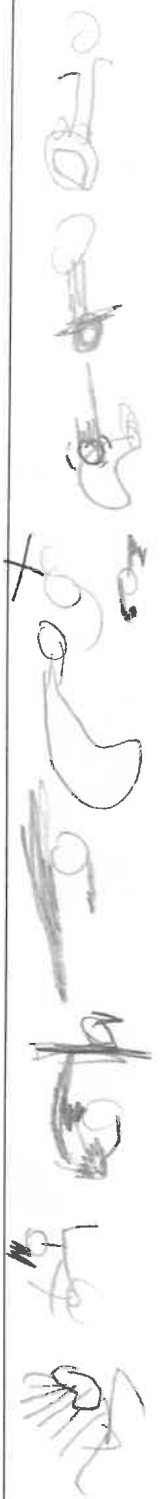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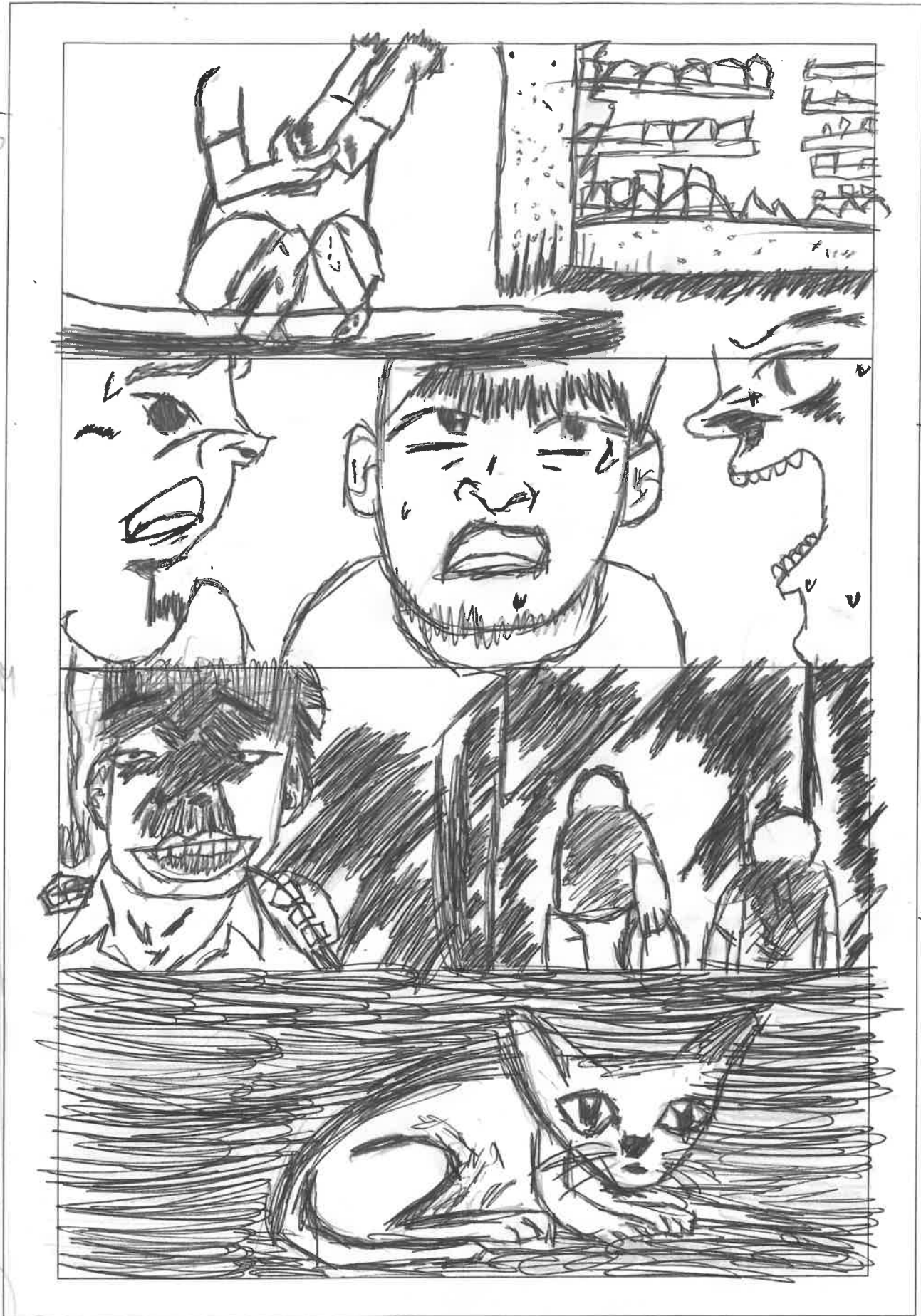
계속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계속 얼굴이 나와서 그 얼굴만 계속 그 얼굴만 생각나고  
인상이 깊었다.

길에서 주워온 고양이가 죽어 있는 장면

저번에 길에 버려져 있는것도 불쌍 했는데 이번엔 죽어서 불쌍 한데 죽어있는것도 너무  
안쓰러워서 인상깊었다.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김태원)



동희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 상처를 입음 그리고 붓그림기만  
뒤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동희가 상처 입은걸 보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음

권수의 어머니가 동희와 동민 접대. 아버지가 없을 때 <sup>느린</sup> <sup>강한</sup>  
하임 그리고 동희와 권수 어머니가 <sup>말</sup>-<sup>사</sup> <sup>말</sup>-<sup>사</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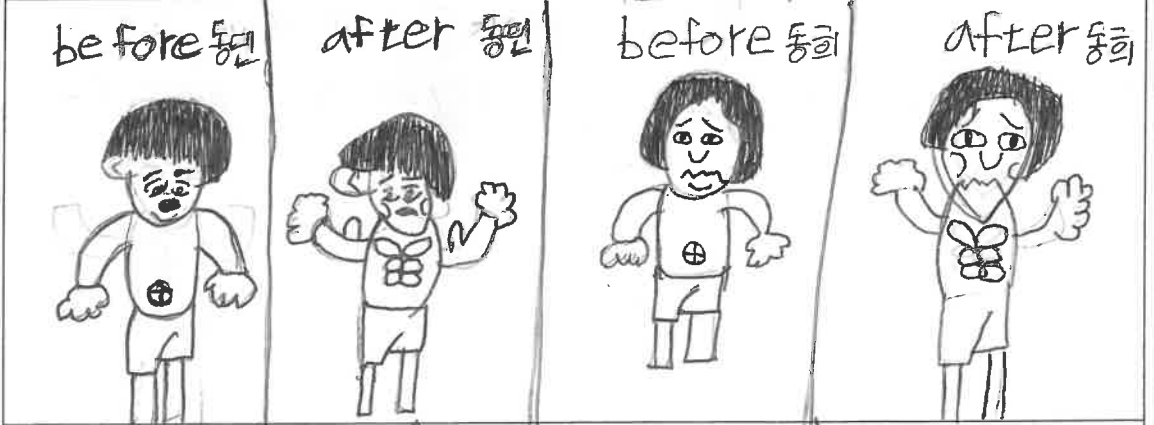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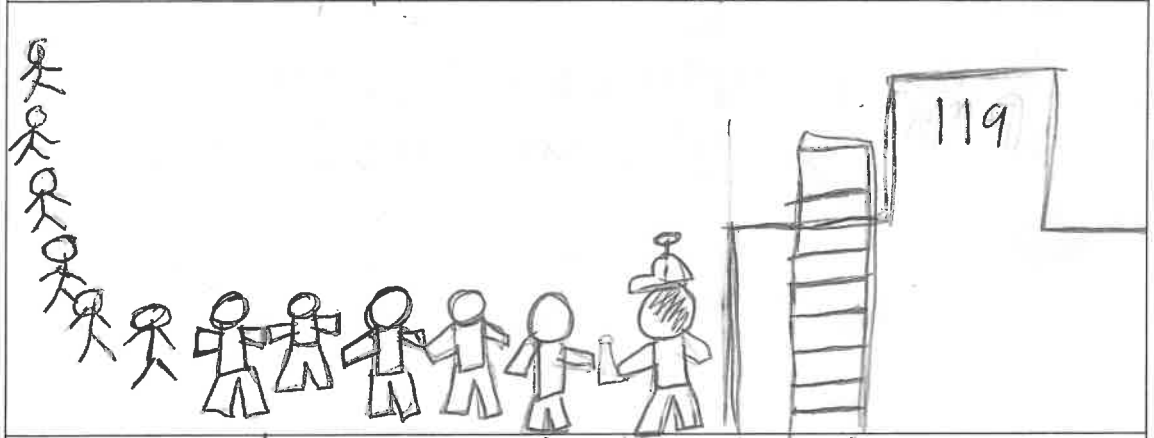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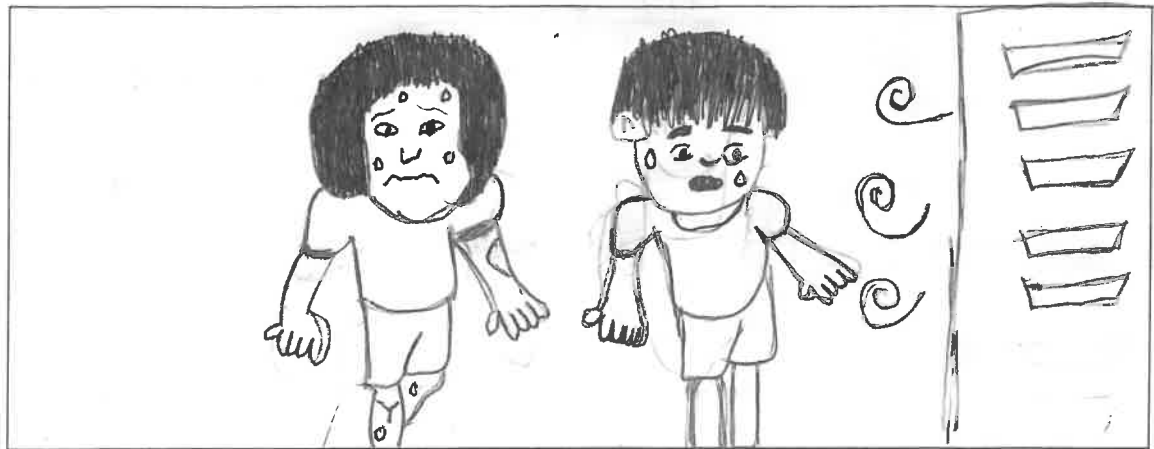
동희와 동민이 거평과 말씨를 <sup>이</sup> <sup>김</sup> <sup>로</sup> <sup>보</sup> <sup>이</sup> <sup>기</sup> <sup>는</sup>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동희가 도움을 받아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보통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서재고양이를 만남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sup>을</sup> <sup>보</sup> <sup>는</sup> <sup>말</sup>

말씨

#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김태후)



u

u

u



동민이와 동희가 너무 더워 은행을 가는 장면

공감이 되어서 서로 너무 더울때 편 의 접으로 몸을 피신 했다

동민이와 동희가 소방서에서 물을 배급 받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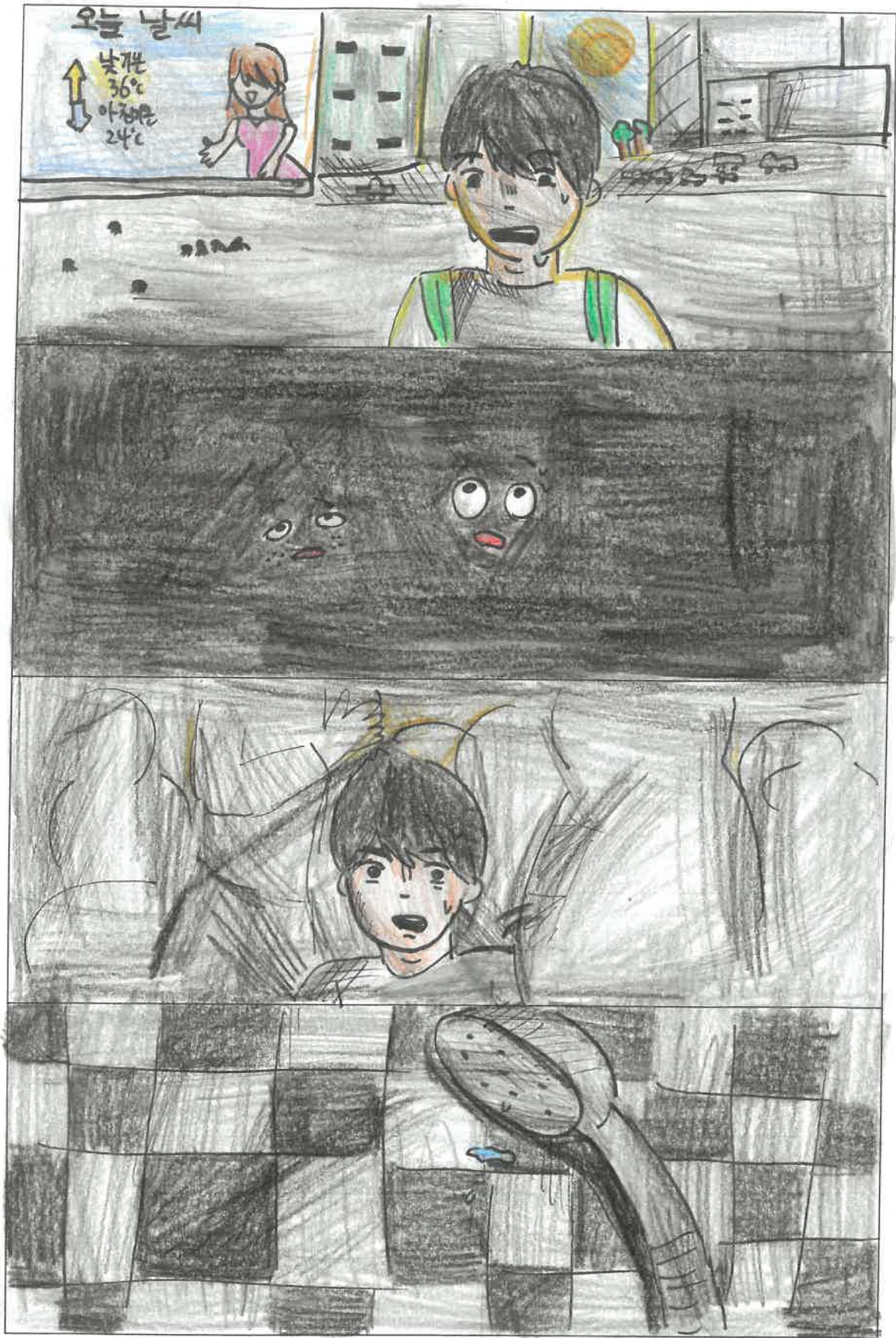
얼마나 물이 부족 했으면 소방서에서 물을 배급 받았을까

동민이와 동희의 다이어트 기록 동부 남매들이 합해 16 킬로그램  
을 빼다 얼마나 더웠으면 이렇게 살이 빠질까

동민이가 고양이 캔을 사는데 장면 자기 먹을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고양이가 죽을까봐 사오는 장면이 감동이였다

#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문서연)



1) 첫번째 컷은 계속 날씨가 더 더워지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그려넣을 이유는 마치 이번년도 여름처럼 날이 가면 갈수록 더워지는 모습이 상당히 비슷해 그려졌다.

2) 두번째 컷은 전차에 전차 나간 장면이다. 이 장면을 그려넣을 이유는 사건의 시작이자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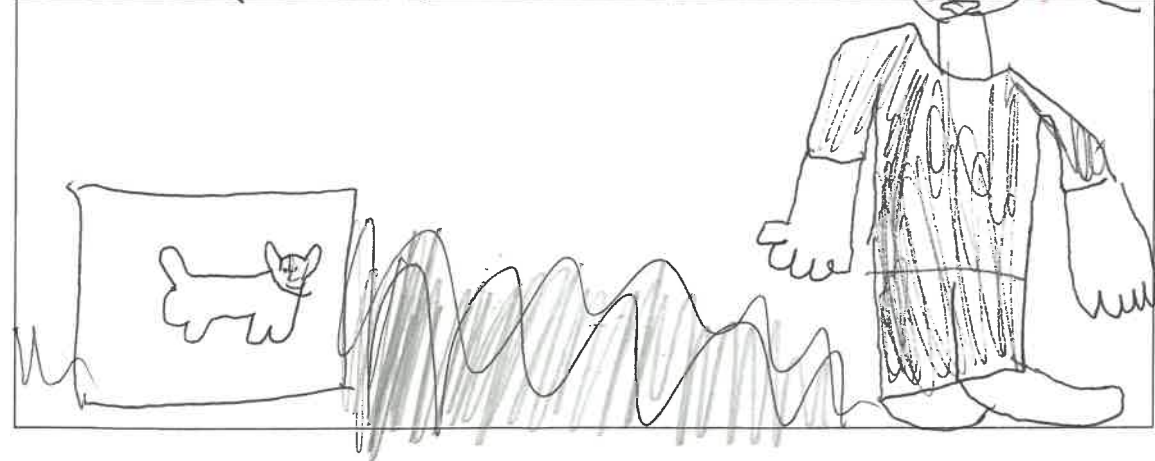
3) 세번째 컷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사무실로 모여든 장면이다. 이 장면을 그려넣을 이유는 완전 관직해 보이고 강강해 보이는 상황이 잘 나타나 있어 그려졌다.

4) 네번째 컷은 이제 물도 아예 안 나오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그려넣을 이유는 전차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어쨌든 어떻게 대처할지 너무 궁금하게 하고, 긴장되기도 해서 그려졌다.

#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박준우)



유수관

그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이그림  
이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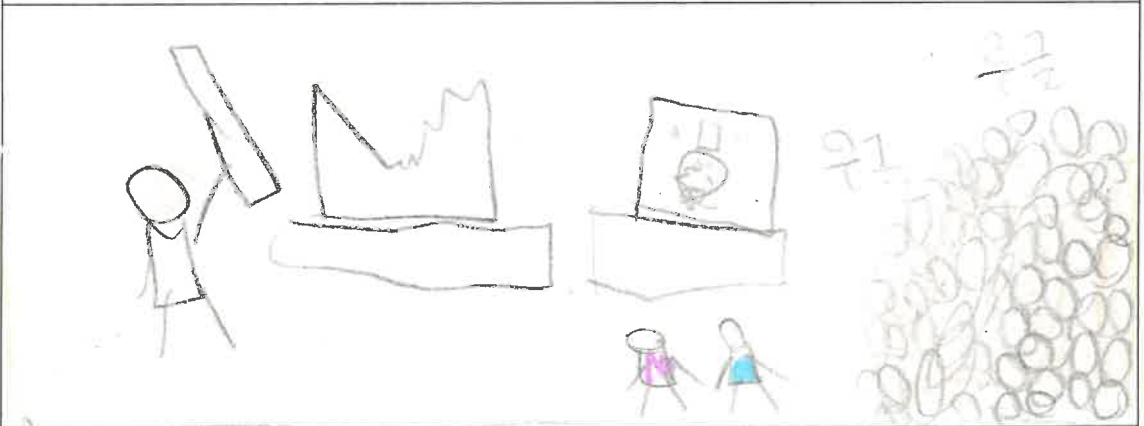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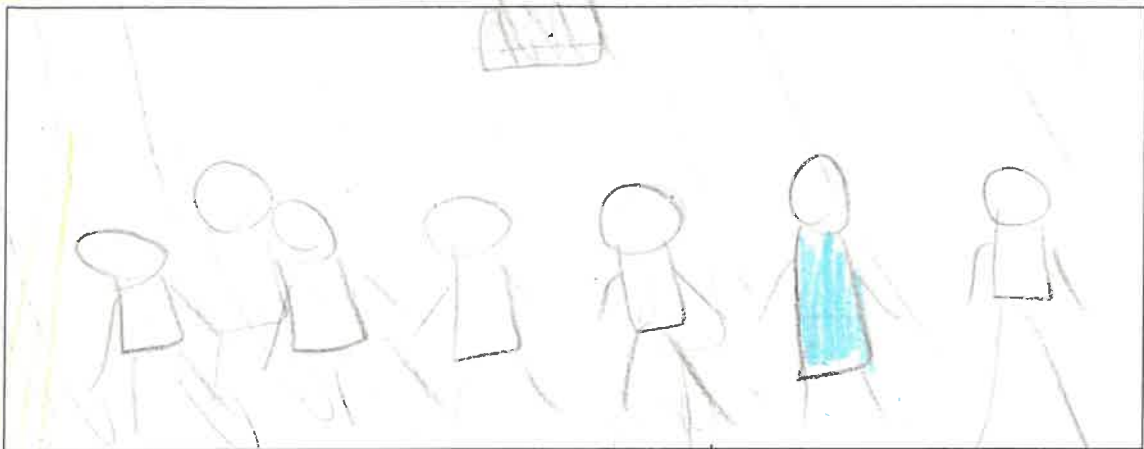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이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무슨 잘못을 해서 저 아줌마가 화나 있는지  
궁금해서이다

좋은 그림이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서 이그림을 선택했다

#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비서태성)



운행에서 블랙아웃이 일어나

가장 처음 이어서 기억이 잘 남,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해도 일어나  
라면 어떨까 싶음

소방서로 가려면 도로에 차가 많고 폐쇄가 될 것 같음  
도시를 순회할 때 잘 묘사된 것이 좋음

백화점에서 전자 제품을 부수고 위로 갈 수 있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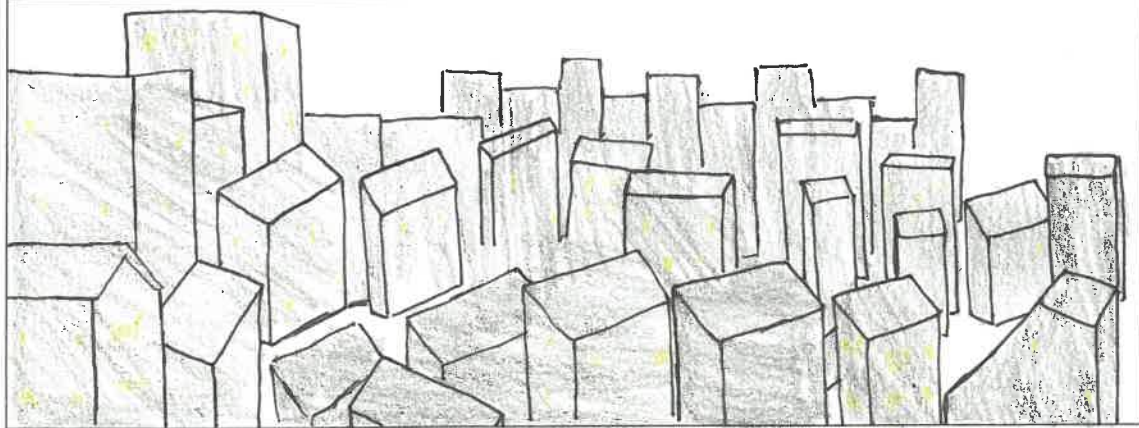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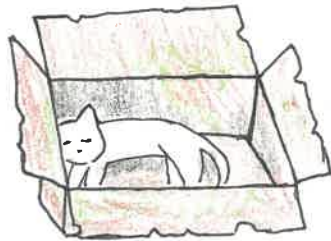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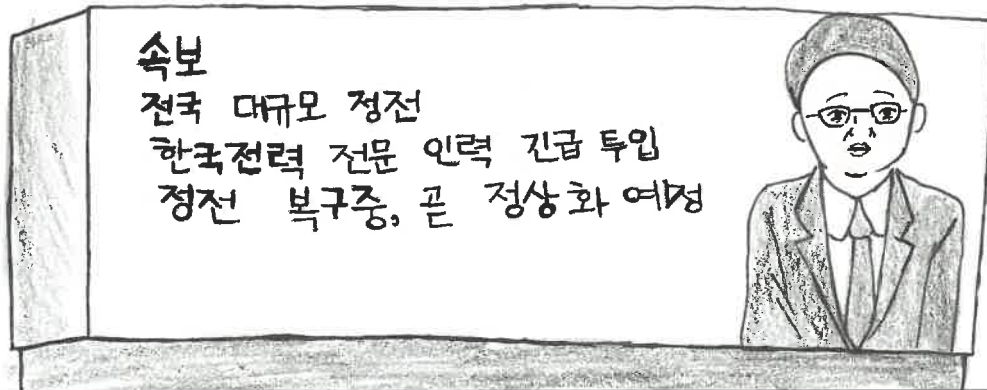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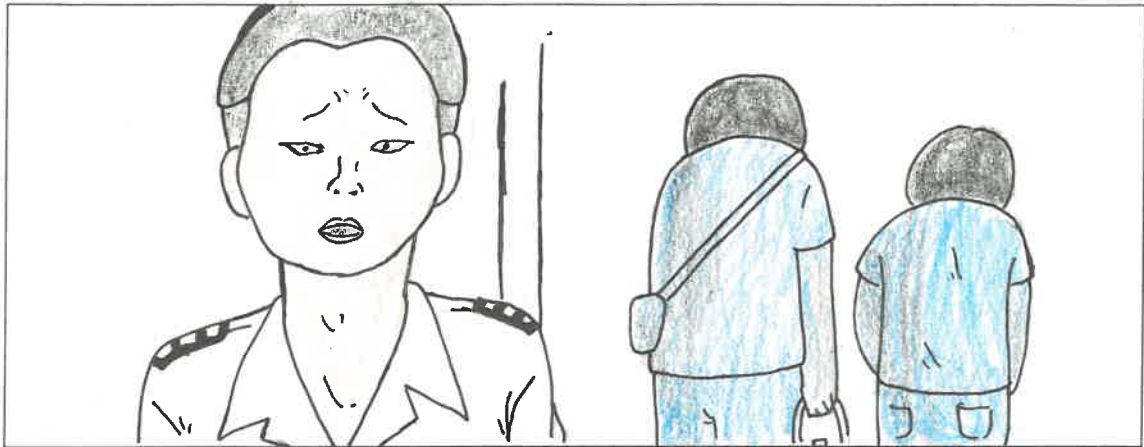
이때 누가 동화와 동인이 의가방을 훔쳐가서 동화가  
미치는 게 인상 좋음

블랙아웃이 끝날 때.

가장 마지막 이어서 인상 좋음

#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서하연)





자신들이 산 물건들을 훔치는 모습을 눈 앞에서 봐는데  
잡지도 못하고, 경찰은 무슨 일인지 적으라고 해서  
동혁이 악을 쓰다가 경찰이 위협하자 겁을 먹고  
돌아가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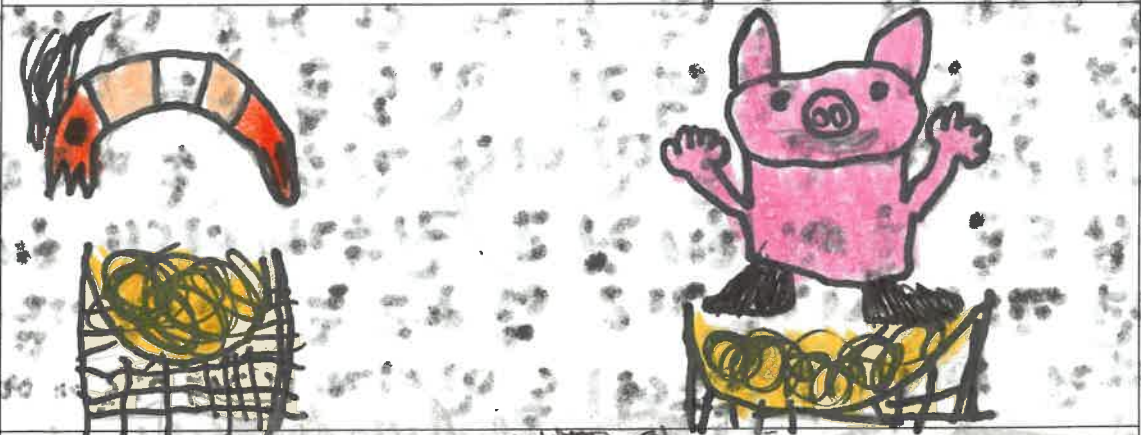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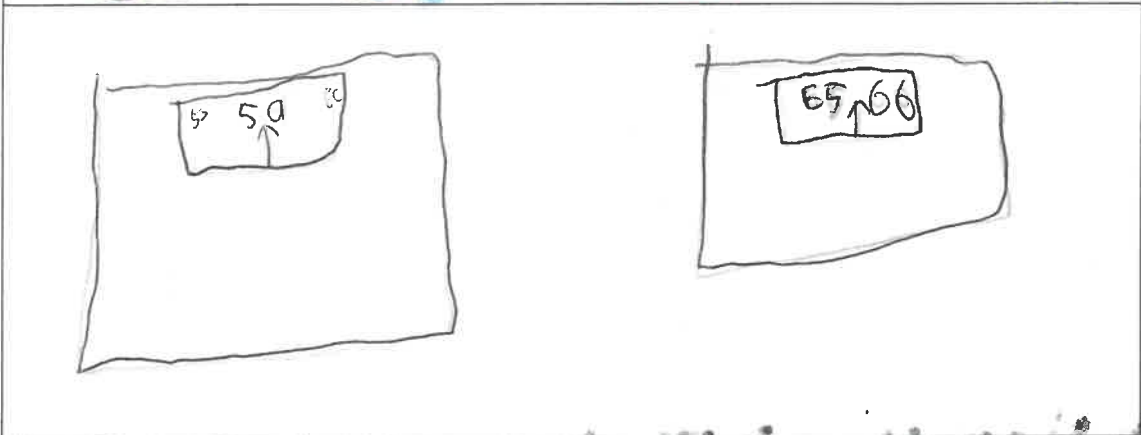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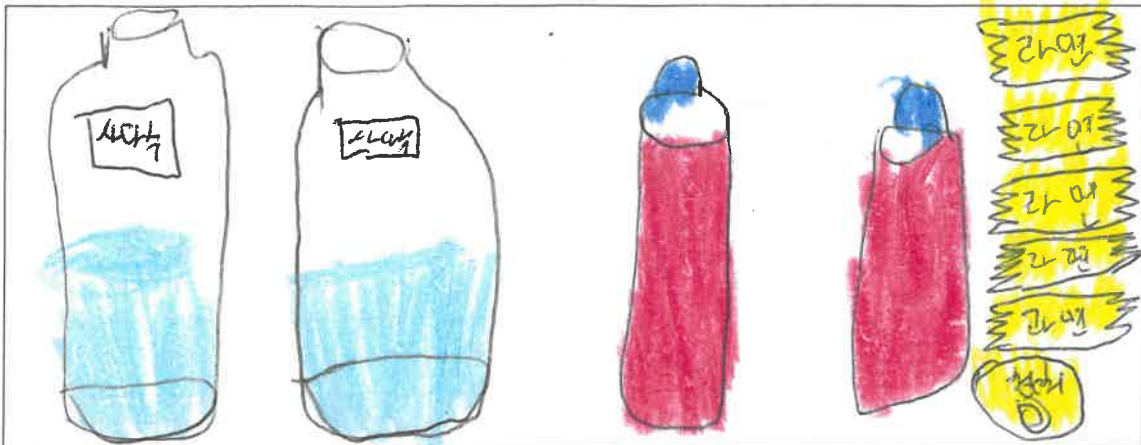
블랙 아웃 첫째 날에 곧 정상화 될거라는 장면

동민이가 열심히 살리려고 하던 고양이가 결국  
죽어버린 장면

블랙 아웃이 일주일째 되고 나서야 정전이 끝난  
장면.

# < 블랙아웃 4반 4컷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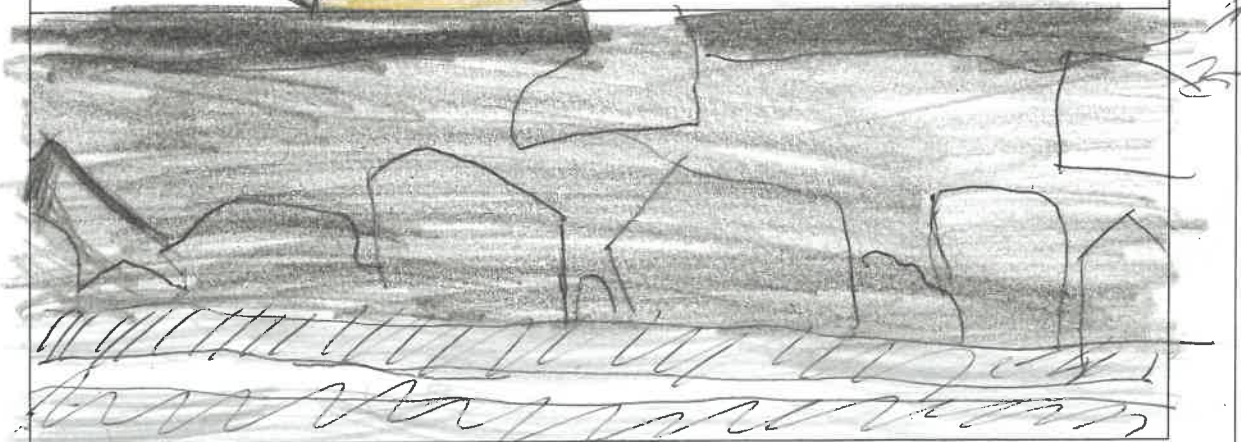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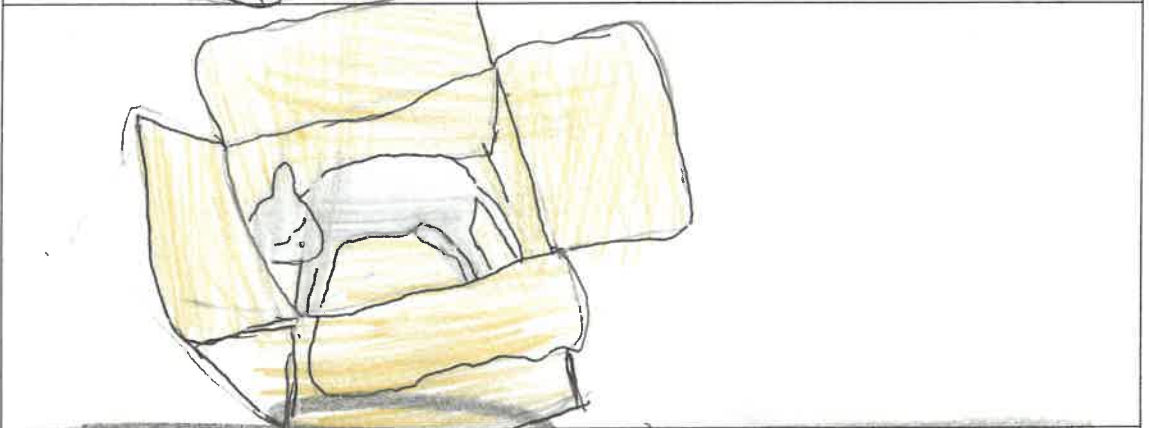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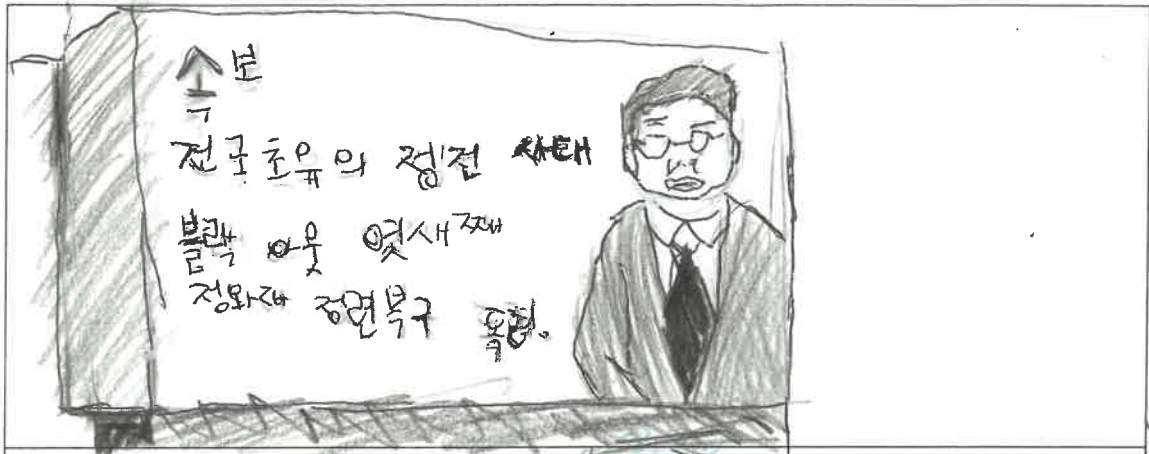
이름 (이시우)





#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이영진)



경전대내 물에  $\frac{1}{2}$ 의 거저 시 알에  $\frac{1}{2}$ 의 거저기

영양사나 의사가

도움이 도망치다  $\frac{1}{2}$ 의 거저 시 알에  $\frac{1}{2}$ 의 거저기

도움이 거저기  $\frac{1}{2}$ 의 거저 시 알에  $\frac{1}{2}$ 의 거저기

도움이 상과  $\frac{1}{2}$ 의 거저 시 알에  $\frac{1}{2}$ 의 거저기

도움이  $\frac{1}{2}$ 의 거저 시 알에  $\frac{1}{2}$ 의 거저기

도움이 거저기  $\frac{1}{2}$ 의 거저 시 알에  $\frac{1}{2}$ 의 거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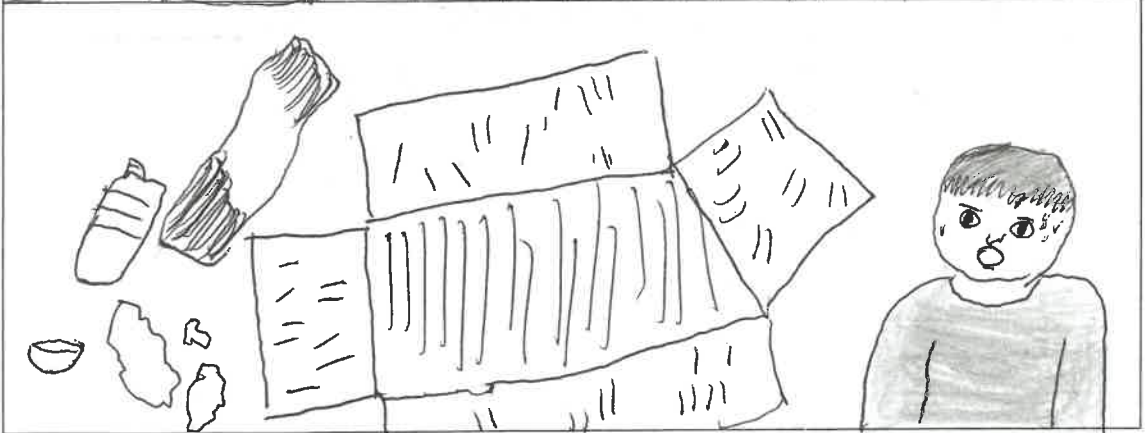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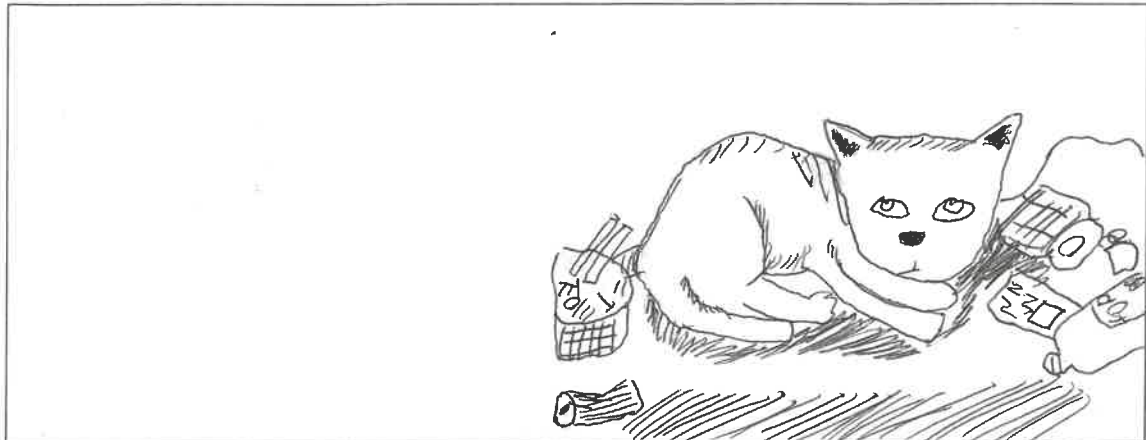
도움이 거저기  $\frac{1}{2}$ 의 거저 시 알에  $\frac{1}{2}$ 의 거저기

도움이  $\frac{1}{2}$ 의 거저 시 알에  $\frac{1}{2}$ 의 거저기

도움이 거저기  $\frac{1}{2}$ 의 거저 시 알에  $\frac{1}{2}$ 의 거저기

#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이은우 )



처음 장면은 글목에 있는 고양이를 발견한 진수인-등말이가 고양이의 방패문에 살짝 다른 상황이다. 고양이가 새 옷을 입고 있어서 신기해했다

~~두번째 장면은~~

두번째 장면은 편지점앞에서 넘어진 상황  
그림이 표현이 잘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세번째 장면은 강아지에 눈이 내리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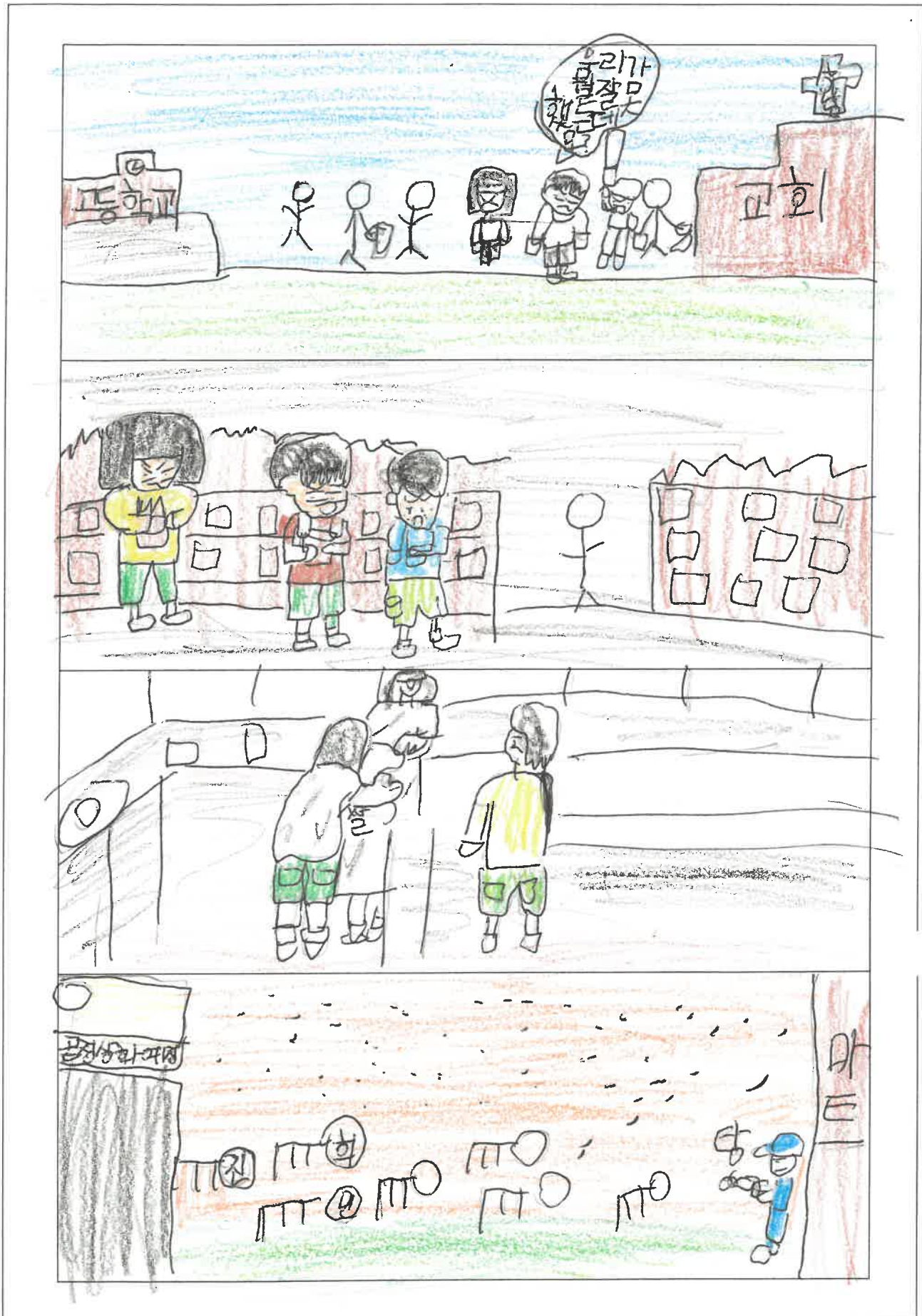
그림에 사람과 강아지가 많이 그려져서 기분이 좋았다.

네번째 장면은 고양이가 밥이 바뀌는 장면이다.

고양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생각이 깊다.

#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이하은)



이하은



첫번째 장면은 동민이가 병원 아주머니께 물을 어디서 많이 샀냐고

물이고 아주머니는 고등학교 옆에 있는 교회에서 얻었다고 했다 그래서

이사실을 누나에게 알려고 ~~했다~~ 다음날 새벽 6시 물을 받으러 갔다

근데 ~~주차를~~ 주차봉을 든 아주머니가 이교회를 안다니는 것을 깨달았고 가라고

한순간, 동민이가 뭐라고 한다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요?" 라고 했다 |

이유! 동민이는 소심한줄만 알아는데 그때 한마디를 한다, 그래서 동희가

용기를 내기 같아기 때문이다 | 두번째 장면은 이웃들이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마트로 갔는데 재미때 처럼 이웃들이

모여 있다. 동민이와 동희는 재미의 머리쯤에 있다. |

이유! 동민이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았지만 무엇이라도 도울려는 동민이

를 보았기 때문이다 | 세번째 장면은 ~~진수가~~ 진수가 현관에서

흔적대고 있다 그것도 동민이집 현관에서 동민이가 무슨 일

이냐고 물자 아무 말도 없다 동민이가 들어가자 동희와 진수엄마

에 목소리가 들려다. 주방으로 가보자 진수엄마가 무리의 쌀을

빼어가고 있다. 진수엄마가 돈대신 쌀로 갚는 것이라면

빼앗아 가고 있다 쌀을 빼앗으니까, 진수엄마는 진수를 데리고 뒤도

안돌아보고 갔다 | 이유! 진수엄마가 동희네 쌀을 가져가는 장면에서

이해가 안된다 엄마아빠가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때 돌려주면

되기 때문이다 | 네번째 장면에는 탕하고, 총소리가 들려다

사람들중에 누군가 따라 오셨다. 경찰은 누구편이냐 ~~또는~~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라! 라고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 오치고, 두번째

총소리가 들려다. 이번에 앞쪽에서 "악!" 소리가 들려다. 또다시

총소리가 들려다 | 이유! 그런 위험한데를 어린 아이들이

가다니는 게 이해는 된다 경찰의 총소는 것 이해가 안된다

이  
장  
면  
은  
이  
기  
다

#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이혜서)



동민이가 새끼 강고양이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  
= 어린 아들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  
새끼 강고양이를 지나치게 ~~안~~아서 기억에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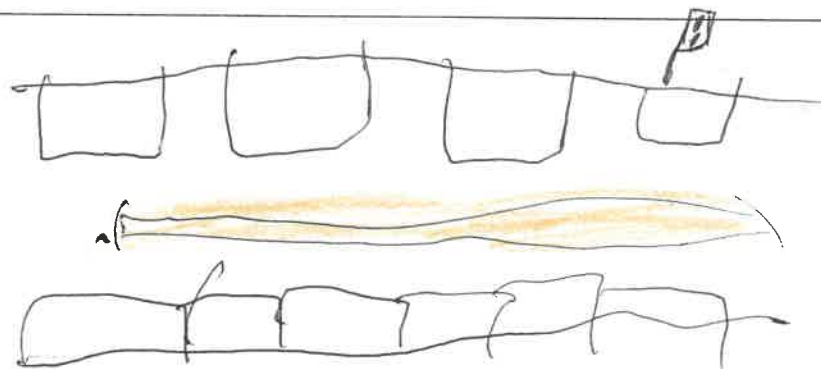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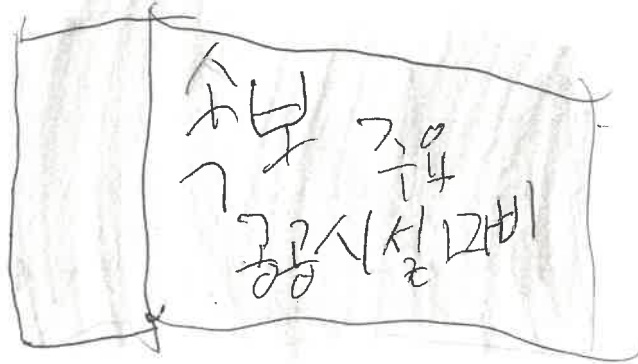
진수 언니가 쌀포대를 가져가는 장면  
= 집에 엄마도 계지 않음에 어린애들이서  
엄청 무서웠던 것 같아 기억에 남는다

사람들이 물건을 부수는 장면  
= 블랙아웃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부수면서 충격받고 무서웠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았다.

비가 오자 불이 들어오는 장면  
= 7일간의 여정이 끝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  
기억에 남았다.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이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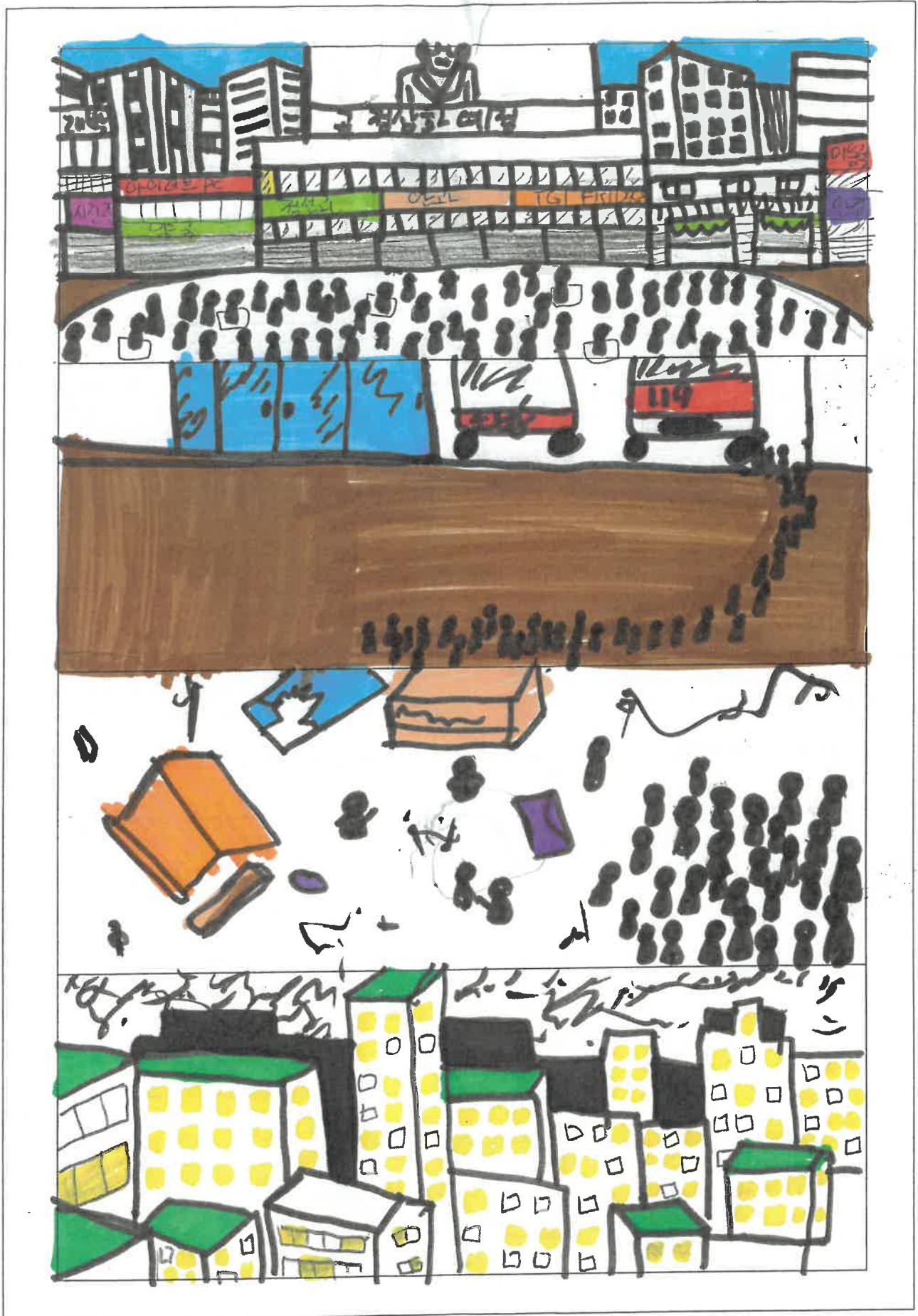
이런 속 부를 부려  
놀라구 무슨 동건 같아서

고양이를 조이는 데  
상자속 아귀 고양이  
분사해서

차고 한쪽에  
타 부어 있고  
생각하면 웃길 것 같아서

신문이 있는 걸 봐  
진짜 인것 같아서

< 블랙아웃 4반 4컷 > 2학년/이름 (정다솜)



첫 번째는 기억에 남는 장면을  
정신이 맑은 채 정감받은 장면들이  
나오는 거나간 신기하기도 하고  
기억에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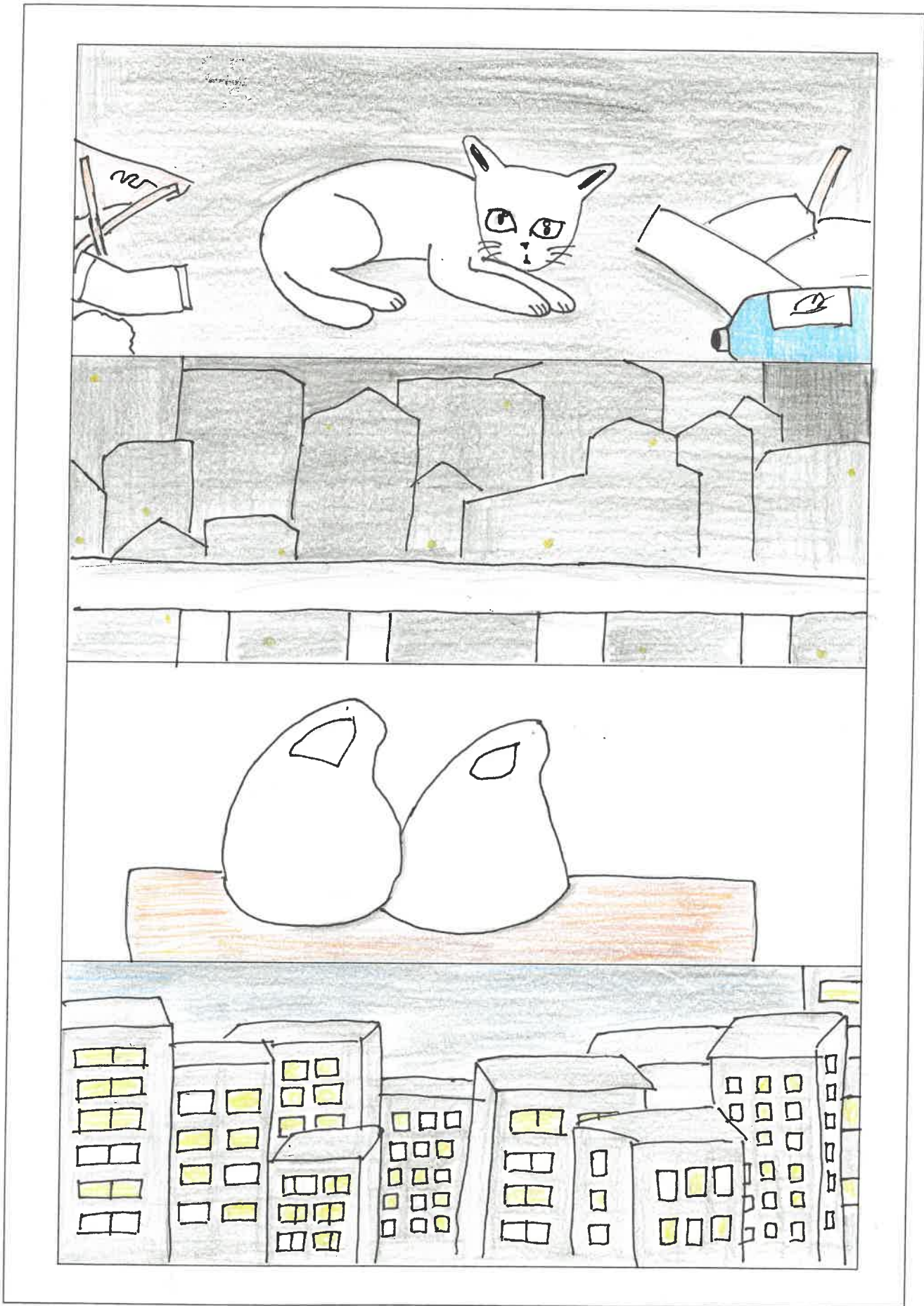
두 번째는 도봉사에서 물을 받던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  
물은 모르겠는데 그냥 기억에 남는다.

세 번째는 갑자기 누르는 넓어져 있고  
누르는 아파하고 누르는 회색고 누르는  
각각을 듣고 뛰어들고 산정판에서  
기억에 남았다.

네 번째는 다시 볼 수 없었던 때  
일종의 동양고상하고 다시 들어나면  
자도 기분이 좋다고 기억에 남았다.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정다영)





다리 아픈 고양이에게 참치캔을 주는 장면

다리 아픈 고양이를 걱정해주고 먹이를 주느라 감동적이라서

온 세상이 블랙아웃이 된 장면

온 세상이 블랙아웃이 되서 무섭고 부모님이 현관에 잠 깨지 않아서 걱정  
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되서

마트에서 산 음식을 도난당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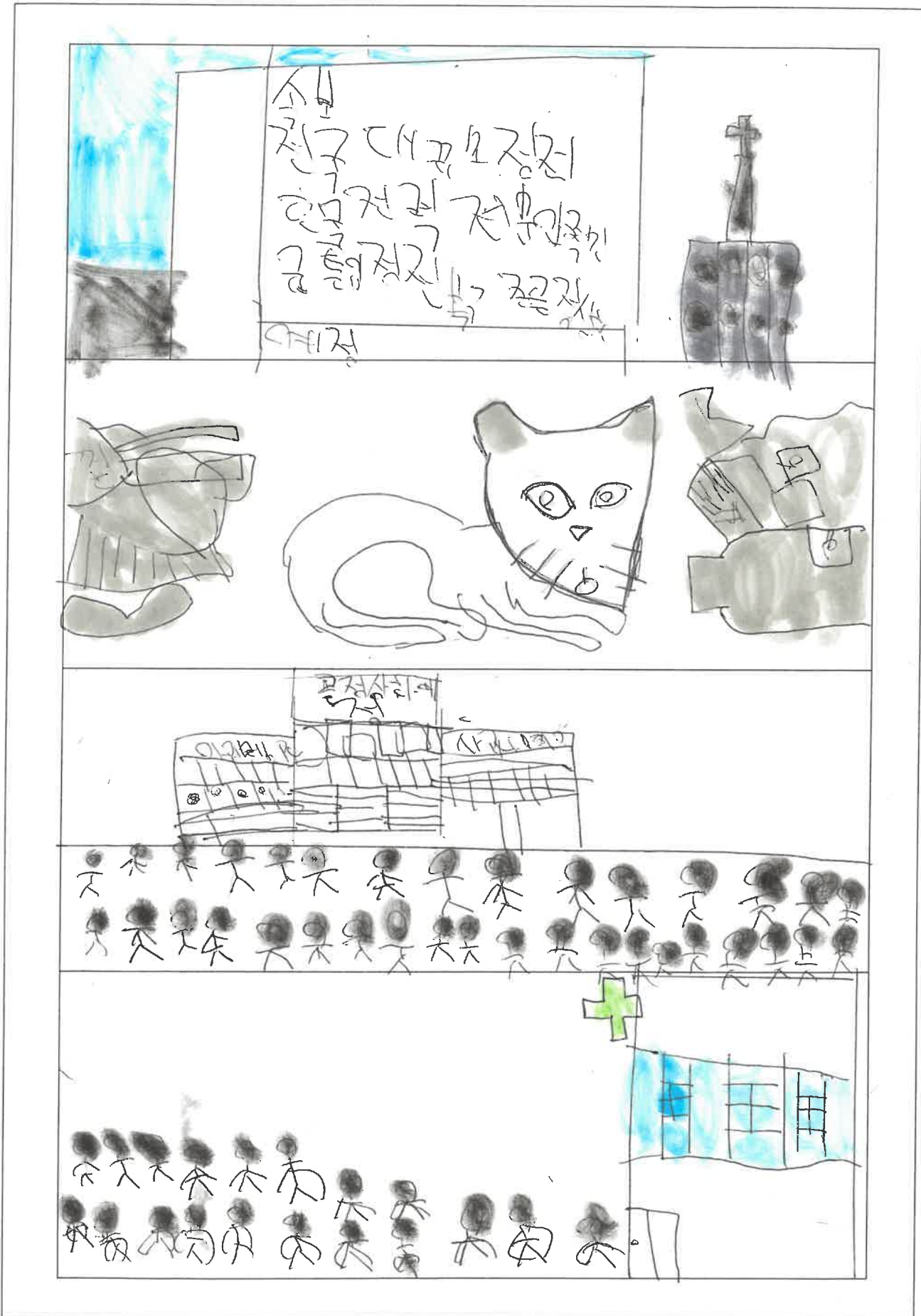
음식을 도난당한 아이들의 속상하고 화난 마음이 이해가 되서

온 세상에 빛이 쬐이는 장면

어두웠던 온 세상에 빛이 쬐이는 장면이 너무 행복해보여서

#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조아일)



저국에서 정전 이 되서 / 인상 기피 하고 정전 될 때  
첫째로써 인상 기피이다 인상 기피된 이유는  
정전이 되게 되기 때문이고 정전된 이유에  
대해서

첫째로써 정전된 이유에 대해서  
정전된 이유에 대해서 인상  
기피이다

정전된 이유에 대해서 정전된 이유에  
대해서 인상 기피  
정전된 이유에 대해서

정전된 이유에 대해서 정전된 이유에  
대해서 인상 기피  
정전된 이유에 대해서

# < 블랙아웃 4반 4컷 >

이름 (        )



세래 낚은 누스글 표현 한 것입니다

이그림은 동민이가 다래를 곁어차였다 그래서 넣어리면서  
헝, 째은외비치 벵수리가 타겼고 그대은 쓰러졌다.

이살개 낚은 누스글 표현한 것입니다

개안고 갠안 고양이 생자가 낚은이 낚기 쪽으로일러가있는  
걸 그려보았다.